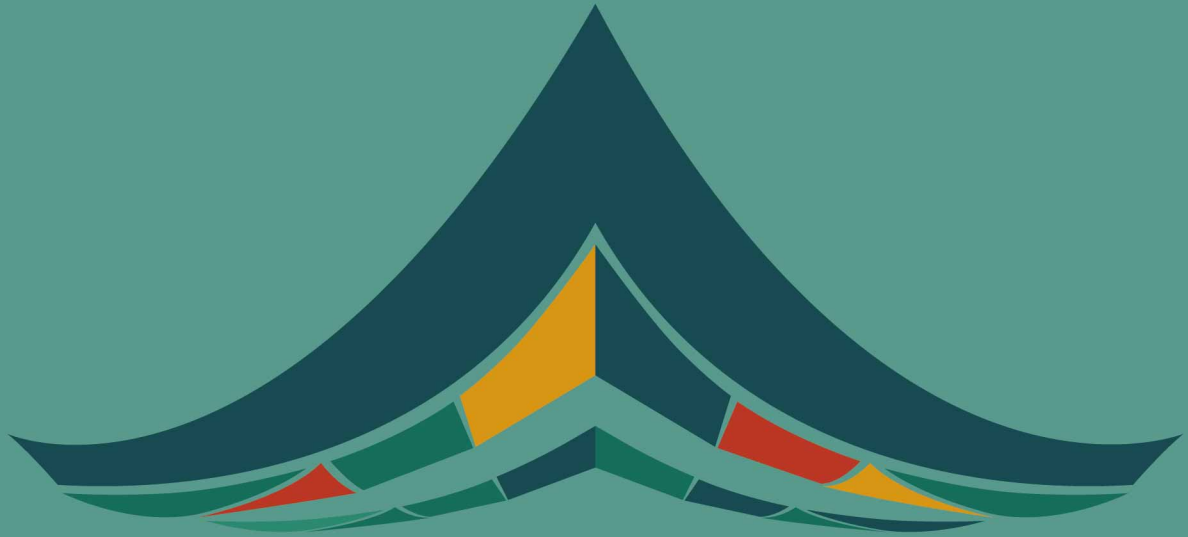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9
2025년 9월



전라남도
완도·넙도·서넙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9
2025년 9월



전라남도
완도·넙도·서넙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3 당제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너른 갯밭이 있어 큰 섬이 부럽지 않았다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9 섬마을이 지켜온 마음, 넙도 내리 당제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2 바다는 오늘도 받아 된다

우리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에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 전화 : 061-286-6764 * 이메일 : fun1015@korea.kr

'시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언제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4 섬은 멈춰 있지 않아요, 서넙도의 내일을 그리며
최양훈 님

17 섬의 뿌리를 지키는 힘
박기태 님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22 1월부터 12월까지,
완도·넙도·서넙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23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4 완도·넙도·서넙도 투어가이드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8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29 이달의 섬코디네이터 이슈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 여수 금오도 송고마을 헌식 (2012년 1월 25일 촬영)

당제는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마을신에게 마을공동체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의례다. 대개 시기는 설날 무렵이나 대보름이며, 이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 달과 관련된 경험지식에 기초하여 한해의 안녕을 바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당제는 지역별로 동(洞)제, 마을굿, 당산제, 갯제 등 명칭이 다양하며 제사형, 풍물형, 무속형, 혼합형 등 형태도 다양하다. 당제를 주관하는 제관의 선정, 제물장만,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절차 등 모든 과정에 엄격한 금기사항이 강조된다. 제관을 선정하여 엄숙하게 지내는 사례도 있고, 풍물단, 무당굿이 결합되기도 한다. 섬과 어촌에서는 풍물을 울리고 선주들이 배의 깃발을 들고 제당에 올라가 당을 맞이하고 내려오는 행렬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제사를 모실 때 매구굿을 치고, 당제를 마친 이후부터 여러 날에 걸쳐 마당밧이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며 놀기도 했다. 당제는 마을 축제였다.



도움 주신 분들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 박기태 완도군 넙도 내리 이장, 완도문인협회 회원
-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 최양훈 완도군 서넙도 주민
-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 이현철 완도군 서넙도 어촌계장
- 완도군청 노화읍사무소 총무팀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웃'이 궁금하다면?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너른 갯밭이 있어 큰 섬이 부럽지 않았다

김 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

수십 년 전, 어촌연구를 할 때다. 완도군 동쪽 끝에 있는 금당면 한 마을에서 만난 이장은 마을일 중 가장 힘든 일로 '등청'을 꼽았다. 등청은 군에서 주최하는 이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말했다. 사극에서 많이 들었던 관청에 출근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승용차를 이용하면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이나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선착장을 통해 1시간 30분이면 군청에 도착한다. 옛날에는 최소 하루 전에 고흥군 녹동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강진과 해남을 거쳐야 군청 근처에서 하룻밤을 자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사흘이고 나흘이고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서쪽 끝에 있는 노화면 넙도리 사정은 어땠을까.

Story 1.

행정편의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먼저 고려해야

완도는 동쪽에 금일을 장원리 원도에서 서쪽 노화읍 방서리 죽골도까지 유인도만 볼 때 직선거리로 70킬로미터가 넘는다. 완도군 동쪽 고흥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장흥, 강진, 해남, 진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2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다. 1896년 2월 3일 고종 칙령 13호로 완도군, 돌산군, 지도군이 설군되면서 여러 군에 흩어져 있던 섬을 모아 완도군이 되었다. 『여지승람』을 보면, 완도군이 설군되기 전에는 장흥(13개 섬), 강진(13개 섬), 영암(24개 섬), 해남(4개 섬)을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완도는 서남쪽은 해남군, 중앙은 강진군에 속했다. 호구총서(1789)에는 노화도, 넙도, 서넙도, 대장고도, 소장고도, 어룡도, 죽골도, 마안도 등은 영암군에 속했다. 당시 넙도면은 노화면과 보길면과 같은 행정 지위를 가졌다. 조선조 섬은 해양방어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위상이 달라졌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완도는 가리포진(1855), 청산진(1866), 삼도진(1883), 고금도진(1887)에 독진이 설치되었다. 특히 삼도진은 노화도 도청리에 설치되어 넙도, 노화도, 보길도 등을 관할했다.

이렇게 흩어진 섬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은 완도군의 숙원사업이었다. 섬에서 일일생활권은 당일 배로 나갔다가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말한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배가 운항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권과 행정권이 흩어져 있는 완도군 섬들을 행정구역 안에서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놓아 일일생활권을 시도했다.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다리도 좋고, 뱃길도 좋지만 섬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야 했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 생활에 우선하는 다리나 뱃길을 생각했다면 훨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한 섬 중 하나가 넙도다.



▲ 하늘에서 내려다본 넙도와 서넙도(2025년 8월 11일)



▲ 넙도 내리 마을의 당제 마당밧이(2013년 2월 11일)

Story 2.

‘넙도 사람들’이 와야 흥청댔던 작은 목포 ‘노화읍’

넙도는 완도군 가장 서쪽에 있는 넙도리 중심 섬이다. 서쪽으로는 조도군도, 북쪽으로는 해남 송지면 땅끝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노화도와 보길도, 남쪽으로 멀리 추자도로 이어진다. 넙도리는 내리와 방서리 두 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리로는 내리, 어룡리, 방축리, 서리 등 4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지명유래에 따르면 김씨가 보길도 우두에서 보아소의 먹이에 해당되어 풀섬이라 불렀는데, 한자표기로 잉도(새풀싹인 莖, 섬도 島)라 기록하기도 했다. 옛기록에는 한자로 ‘莖島’로 쓰고 ‘넙도’로 읽고, 莖을 새싹이 아니라 廣자와 같은 뜻으로 해석했다. 넙도는 크기가 이웃 보길도 1/16, 노화도의 1/14에 불과하지만 바다가 넓은 1990년대까지 김 양식이 2000년대에는 전복 양식으로 소득이 높아 ‘돈섬’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넙도는 섬 땅보다 섬을 둘러싼 바다가 넓다. 간척된 농지와 염전이 넓은 노화도가 부럽지 않고, 산과 숲이 좋은 보길도에 끌리지 않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힘이다. 김 양식을 할 때는 작은 섬이지만 보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노화도보다 흥청댔다. 완도에서 작은 목포로 불렸던 노화읍도 넙도 사람들이 김 수매를 마치고 들어와 돈을 써야 상가가 활기가 넘쳤다.



▲ 신앙과 전통을 담은 넙도 내리당의 신물

보길도나 노화도는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큰 섬이며 조선조에는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뱃길로 이어졌다. 또 제주목장에서 물으로 옮기는 마소를 기르는 곳이기도 했다. 큰 목장의 섬 옆에는 반드시 풀섬이 있다. 그 풀섬이 구전을 거쳐 한자표기로 바뀌면서 초도가 된 유래들도 있다. 또 다른 지명 유래로 섬의 생김새다. 소를 닮은 우도, 게를 닮은 넙게가 넙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섬을 다니면서 지명유래를 뒤집어 보는 버릇이 생겼다. 누운 소를 닮았다는 우도는 누운 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넙도는 섬 면적이 넓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섬보다 주변에 바다가 먹고 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바다가 더 넓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을 축제인 당제의 규모다. 넙도의 내리와 방축리, 서넙도의 서리는 큰 소 한 마리를 바쳤다. 내리마을에서는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머리와 다리는 제물로 사용하고, 가족은 손질하여 정월 초하루 풍물을 칠 때 술안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마을주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명절에 고깃국을 끓여 올리고 산적을 만들어 차례를 지냈다. 내리만

아니라 같은 섬 방축리, 이웃 섬 서리마을도 소를 잡아 당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낸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마을은 살아 있는 소를 직접 잡아 제물로 올렸다는 점이다. 넙도 내리마을은 지금도 당제를 지내는 날이면 해남 시장에서 소를 구입해 마을에 방목을 한다.

넙도리 세 마을 중에 당제 규모도 크고 당집을 잘 정비한 마을이 내리다. 방축리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당집은 곶술, 팽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가 울창할 숲을 이룬다. 내리 이장의 안내를 받아 당집에 들어섰다. 당신을 모신 집과 음식을 준비하는 집 등 두 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집에는 신체를 대신해 의복이 걸려 있고, 제물을 준비하는 집에는 그릇 등이 보관되어 있다.



▲ 넙도 내리, 당숲 속에 자리한 돌담과 당집

Story 3.

주민의 생활권을 존중하는 섬 정책이 필요하다

완도처럼 양식이 활발한 섬은 생산과 유통이 원활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핵심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다. 전복 양식이든 김 양식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넙도나 서넙도나 다른 섬에 비해 젊은 사람이 많다. 서넙도는 유치원까지 있다.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이 있어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도 운영이 되고 있다. 섬마을이 지속되려면 불편한 뱃길이 개선되고 양식어업을 위한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넙도나 서넙도도 이 문제가 현안이다. 여전히 완도보다 해남이 가깝지만, 행정의 지원을 받는 뱃길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택배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뱃길이나 다리가 해법이다. 요즘처럼 택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주문 택배로 양질의 농수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섬 주민들도 있다. 그래서 행정 중심으로 다리나 뱃길을 생활권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행정권역을 조정하면 더 좋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행정을 넘나들 수 있는 생활권을 존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관계인구라로 낮아지고 있고, 관련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넙도처럼 공간이나 접근으로나 육지의 행정권으로 풀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섬이 제법 많다. 생활권을 중시하는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 넙도에 도착한 노화카훼리 7호



▲ 마을의 안녕을 오래 지켜온 넙도 내리 당숲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섬마을이 지켜온 마음, 넙도 내리 당제

동넙도 내리마을에는 오랜 세월을 품은 숲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당숲'이라 부릅니다.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당집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복 한 벌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숲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기에 더욱 특별한 기운이 감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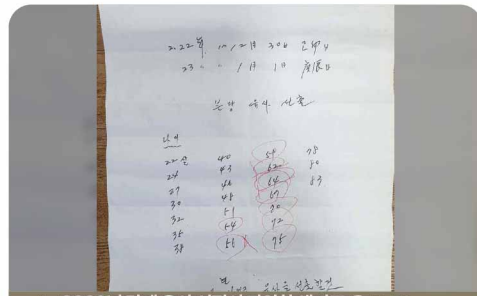
▲ 돌담으로 둘러싸인 내리 당집 출입문



▲ 당집안을 살펴보는 모습(좌: 김준 박사, 우: 박기태 넙도 내리 이장)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양력 1월 1일 다음날), 내리마을 사람들은 당숲에 모입니다. 새로운 한해의 평안과 바다의 풍성한 수확(풍어)을 기원하는 당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제상 위에는 소머리와떡, 나물, 과일 같은 정갈한 음식이 오르고마을을 대표해 뽑힌 제사 담당자(제관·유사)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숲 속은 고요해지고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당제 순서, 쉽게 살펴보기



01 제관 뽑기(유사)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기운의 사람을 정해,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02 제물 준비

소를 잡아 고기를 집집마다 나누고, 제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합니다.



03 당제 올리기

자정 무렵 당집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풍성한 바다 수확을 기원합니다.



04 신에게 올림(헌식)과 나눔

당제가 끝나면 주민들과 함께 소가죽을 나누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05 마당밭이

집집마다 풍물패가 돌아다니며 가정의 안녕을 흥겹게 빌어줍니다.



▲ 흥겨움 속에서 음식을 즐기는 마을 사람들 ©송기태



▲ 군중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상 ©송기태

제사에서 가장 특별한 장면은 '나눔'입니다. 제물로 준비된 소고기는 집집마다 고르게 나누어지고, 어느 가정에서나 같은 음식을 차려낼 수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마을 전체가 같은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이 나눔의 전통은 섬 공동체의 평등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어주는 약속이 됩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은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풍물패의 북소리와 팽과리 가락이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섬 주민들은 음식을 내어주며 당제를 지내기 위해 돌아온 가족들과 방문객을 반깁니다. 집집마다 웃음과 축복이 번져가고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정지국은 집안 가득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넓도 내리의 당제와 마당밭이는 섬 주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제관(유사)의 정성과 주민들의 참여, 집집마다 전해지는 따뜻한 안부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제를 준비하고 지내는 과정 속에서 마을은 한마음이 되고, 그 결속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오늘도 내리마을 사람들은 당숲을 돌보고 당제를 이어가며 삶의 질서를 지켜갑니다. 당제는 신앙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확인하는 마을의 축제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함께 이어가는 전통은 마을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밝게 비춥니다.

섬의 당제는 섬 주민들이 함께 지켜온 소중한 축제이자, 계속 이어가야 할 문화입니다. 오래된 전통은 오늘도 살아 숨 쉬며 내일의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줍니다. 당제는 섬마을이 품은 기억을 미래로 전하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바다는 오늘도 발이 된다

넙도의 바다는 언제나 풍요로운 발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전복을 정성껏 키우며 섬의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전복 종자는 최소 1년 반에서 길게는 3년 동안 바다 품에서 자라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전복(치패)을 넣고 약 18개월, 즉 1년 반 정도 키우면 '중간 크기 전복'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전복을 원할 때는 2년 반에서 3년 이상을 기다리며 돌봅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라나는 전복은 기다림과 정성이 어우러진 선물입니다.

주민들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이며 전복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핍니다. 바람의 세기와 물살의 흐름, 바닷물의 맑음을 늘 살피며 양식장을 지켜냅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다 풍경은 전복의 성장과 함께 섬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양식의 과정은 꼼꼼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물에 달라붙은 해양 생물들을 제거하고, 고속 분무기로 그물을 씻어내며 청정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바다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건강하게 자란 전복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노력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 다시마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넙도 전복들



▲ 서넙도에서 바라본 넙도 어민들의 전복 양식장



수확의 날이 다가오면 물 위로 반짝이며 올라오는 전복은 바다와 사람이 함께 빚어낸 귀한 결실입니다. 전복은 섬의 식탁을 채우고 육지의 시장으로 나가 전국 곳곳의 밥상에도 오릅니다. 바다는 그렇게 섬과 세상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고 넙도의 전복 양식은 풍요와 희망을 키워가는 섬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이 됩니다.

전복 한입에 담긴 건강한 비밀

영양 가득한 해산물, 전복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100g 기준 단백질 약 17g, 지방 1% 내외, 열량은 약 105kcal 이며 철분, 셀레늄, 비타민 B군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요!

(참고: FoodStruct - Abalone nutrition facts, USDA 기법)

전복이 지닌 건강 효능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과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지원하죠.

(참고: Aussiemeat.hk - Health Benefits of Eating Abalone Kansom.com - Abalone Facts)

신선한 전복 고르는 팁

껍질이 단단하고 윤기있으며, 살이 통통하고 향이 깔끔한 전복이 신선해요!

(참고: Kansom.com - Abalone Facts, 신선도 가이드)

전복 손질 3단계

- ① 손가락으로 껍질과 살을 분리해 주세요
- ② 내장을 따로 정리해 요리 때마다 사용해주세요
- ③ 솔로 껍질·살 표면을 깨끗이 문질러 마무리해주세요

(참고: 한국수산물원광단 - 수산물 손질 및 조리 가이드)

손길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더 큰 성취와 만족을 안겨줍니다. 바다는 오늘도 힘차게 일하는 발이 되고 넙도 사람들은 그 발에서 내일을 거둡니다. 넙도의 전복이 여러분의 밥상에서도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 서넙도 서리마을의 포구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은 멈춰 있지 않아요, 서남도의 내일을 그리며

최양훈 서남도(서리) 주민



Q1. 서남도는 어떤 곳인가요?

서남도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육지에서 다녀야 했지만, 결국 저는 서남도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섬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바다는 유일한 놀이터였고, 친구들과 함께 파도를 맞으며 뛰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의 서남도는 소박하고 고요한 섬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공부와 일을 하며 다른 삶을 잠시 경험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래와 김을 양식하다 전복으로 전향했고 최근에는 어업권을 정리하며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서남도는 인생의 뿌리이자 끝까지 지켜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Q2. 서남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남도는 겉으로는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하루하루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섬입니다. 그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등대와 4륜 구동차를 몰고 올라가야 하는 논두레이 봉입니다. 등대에 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논두레이 봉에 오르면 섬의 형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높이는 170~200m 남짓이지만 정상에 서면 추자도와 진도까지 이어지는 탁 트인 시야가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또 '닭섬'이라 불리는 작은 바위섬과 그 옆의 돌담섬 사이로 해가 지는 순간은 서남도를 대표하는 장관입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 위로 스며드는 모습은 날씨가 좋은 날에만 볼 수 있는 귀한 풍경으로 서남도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Q3. 서남도에 살아가며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서남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입니다. 배가 하루 한두 번뿐이라 육지를 오가기가 쉽지 않고, 풍랑주의보라도 발효되면 며칠씩 발이 묶이곤 합니다. 요즘은 물이 늘 걱정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 용수도 부족하고 식수도 마땅치 않아 결국 물을 사다 먹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나마 식수 지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끊기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식수를 사다 드리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도 안정적이지 않아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바다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은 줄어드는 현실도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에 태풍 피해는 늘 두려움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이어 태풍이 몰아쳐 전복 양식장이 무너지고 김발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들은 서로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불편은 많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을 배웁니다.



▲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논두레이봉 풍경



▲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남도초등학교 서리분교장

Q4.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마을의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섬에 청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만 계신 마을에서 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됩니다.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에는 활기가 돌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얼마 전부터 서남도에 남도초등학교 서리분교장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섬과 육지 곳곳에서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을에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저는 변화의 작은 시도라도 이어가면서 마을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힘을 모아 우리 섬의 '다음'을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앞으로 그리고 싶은 서남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져 섬 주민들이 병원에도 가고, 은행도 다니고, 마트도 들르며 기본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에 작은 식당이나 치킨집이 생겨 퇴근 후 주민들이 모여 안부를 나누고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남도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제주와 가까운 이점을 살려 체험형 관광을 발전시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남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와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서남도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희망차고 따뜻하리라 믿습니다.



▲ 서남도 서리마을을 밝히는 벽화

에디터 이야기 청년이 밝히는 서남도의 내일

인터뷰를 마치고 서남도의 현재와 미래가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통과 식수, 태풍 피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섬에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새 분교가 세워지고 마을에 청년이 하나둘 모여드는 변화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들으며 서남도의 내일을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을 마음 깊이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섬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청년의 용기와 열정이 그 증거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서남도의 내일이 더욱 희망차고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의 뿌리를 지키는 힘

박기태 남도내리아장



Q1. 다시 찾은 고향 섬,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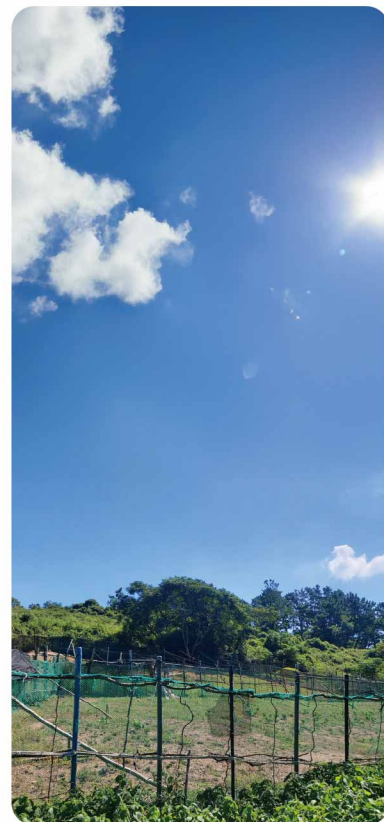
저는 남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바다와 함께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완도 노화읍과 광주광역시에서 공부하며 한동안 섬을 떠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마치 '24년 12월 3일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 생활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리움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지금은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바다의 생태계 환경도 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가족 구성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창 바다일로 섬이 풍족했던 시절에는 노력한 만큼 되돌려주는 바다가 제 일상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가끔 떠올리며 지나지만 여전히 바다는 제 삶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다시마를 먹고 자라는 넙도 전복

Q2. 주민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우리 섬 주민들의 삶은 바다와 뿔 수 없습니다.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며 전복 양식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전복은 1년 내내 손길이 필요한 까다로운 양식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김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파래는 9월부터 봄까지가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전복의 먹이가 되는 다시마를 기르는 일도 이어집니다. 하루는 언제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날씨와 바람이 곧 일과를 좌우합니다. 섬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텃밭에서 길러 상차림에 올립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추, 마늘, 참깨, 콩, 배추 등을 심어 생활을 이어가며 닭을 키우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여름이면 고추가 붉게 익어가고 가을에 심은 마늘은 이듬해 초여름에 뽑아 햇볕에 말립니다. 참깨와 콩은 늦여름과 가을에 수확하며 배추는 찬 바람이 불 무렵 심어 김장철에 맞춰 거둡니다. 쌀이나 과일, 육류는 육지에 나가야만 구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지만 사계절의 리듬 속에서 바다와 밭이 어우러져 주민들의 살림을 든든히 지탱합니다. 이는 다른 작은 섬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페어구로 새롭게 태어난 정성 가득한 닭장



▲ 당제의 막을 여는 내리마을 풍물패 ©송기태



넙도 내리당제와 설음식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기

* 정보 출처: 중앙일보

Q3. 넙도 내리 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넙도의 이장에게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책무는 음력 1월 1일에 지내는 당제*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올리는 제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켜 진행합니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따져 마을에 복이 드는 사람을 뽑으며 이 과정 또한 이장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당제를 준비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황소 값만 해도 수백만 원에 이르고 제관 사례비와 제수 준비, 음식 비용까지 합치면 1,5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주민들은 "당제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이장 자격이 없다"고 말할만큼 이 의식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당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넙도에서는 지금도 전통 방식의 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섬 주민들이 함께 지켜낸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넙도 당제: 마을신 '당할머니'를 모시는 제사로, 공동체가 한 해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신년 의례.

Q4. 당제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당제를 준비하는 일은 늘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전통을 이어갈 인력이 부족하고, 절차를 하나하나 챙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미리 사서 마을에 풀어두기도 했지만 지금은 행사 이틀 전쯤 구해와 서둘러 준비합니다. 날씨와 일정까지 맞춰야 하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이 전통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함께 품고 있기에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제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의례입니다. 이 전통을 잇는 것은 곧 이장의 의무이며 마을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본격적인 당제를 올리기 위해 당소로 향하는 모습 ©송기태



▲ 해남 땅끝선착장에서 넙도로 향할 준비를 하는 노화카훼리 7호

Q5.

섬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섬 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은 교통입니다. 예전에는 노화도 산양과 땅끝까지 이어지는 여객선이 하루 세 차례 다녔지만 해광운수가 적자를 이유로 노선을 포기하면서 지난 3월 1일부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체 선박도 투입되지 않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그사이 완도군이 예비비를 들여 화물선을 50일간 임시로 운항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섬사랑호가 투입되었지만 결항이 잦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현재는 섬사랑호가 하루 세 차례, 농협 배가 땅끝에서 두 차례 오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땅끝이나 목포로 곧바로 닿는 배편이 없어 불편이 큼니다. 주민들은 노화로 먼저 나간 뒤 다시 배를 갈아타야 육지에 닿을 수 있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병원 진료나 생필품을 구하러 가는 일조차 하루를 온전히 써야 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배가 곧 생명줄이 되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큼니다. 교통편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의료와 보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보건지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육지 병원으로 나가야 하지만 배편이 원활하지 않으니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헬기를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문제 해결은 섬 주민 모두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과제입니다.

Q6. 앞으로 넙도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넙도는 전복, 김, 파래 같은 양식업으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당제가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섬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넙도 주변에는 무인도와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많아 신안 홍도처럼 유람선을 타고 절벽을 따라 둘러볼 수 있다면 큰 매력이 될 것입니다. 당제를 비롯한 마을의 전통을 함께 소개한다면 넙도는 바다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넙도가 '육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섬'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교통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섬 주민들도 미래를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지으며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즐기는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넙도, 솔지향

박기태

너는 나에게 기다리란 말을 하지 않는다
 나 또한 너에게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너는 나에게 눈빛의 인사만 할 뿐
 나 또한 너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할 뿐이다
 그리고 배는 뒷걸음 치며 소용돌이와 함께
 향해의 몸짓을 바로잡으며 전진한다

다시 오지 못한다는 말은 금기어이어야 하며
 다시 오리라는 믿음은 흐르는 물살이어야
 한다는 것을 곱씹으며 바다를 향해
 눈을 고정시켜 새 한 마리 날으는 것을
 따라가며 나는 너에게 아주 멀리 오래도록
 안부를 묻는 것이다

▲ 섬의 숨결을 노래하는 박기태 내리 이장(완도문인협회 회원)
 * 시웃 넙도편을 위해 건넨 미발표 시 <넙도, 솔지향>

에디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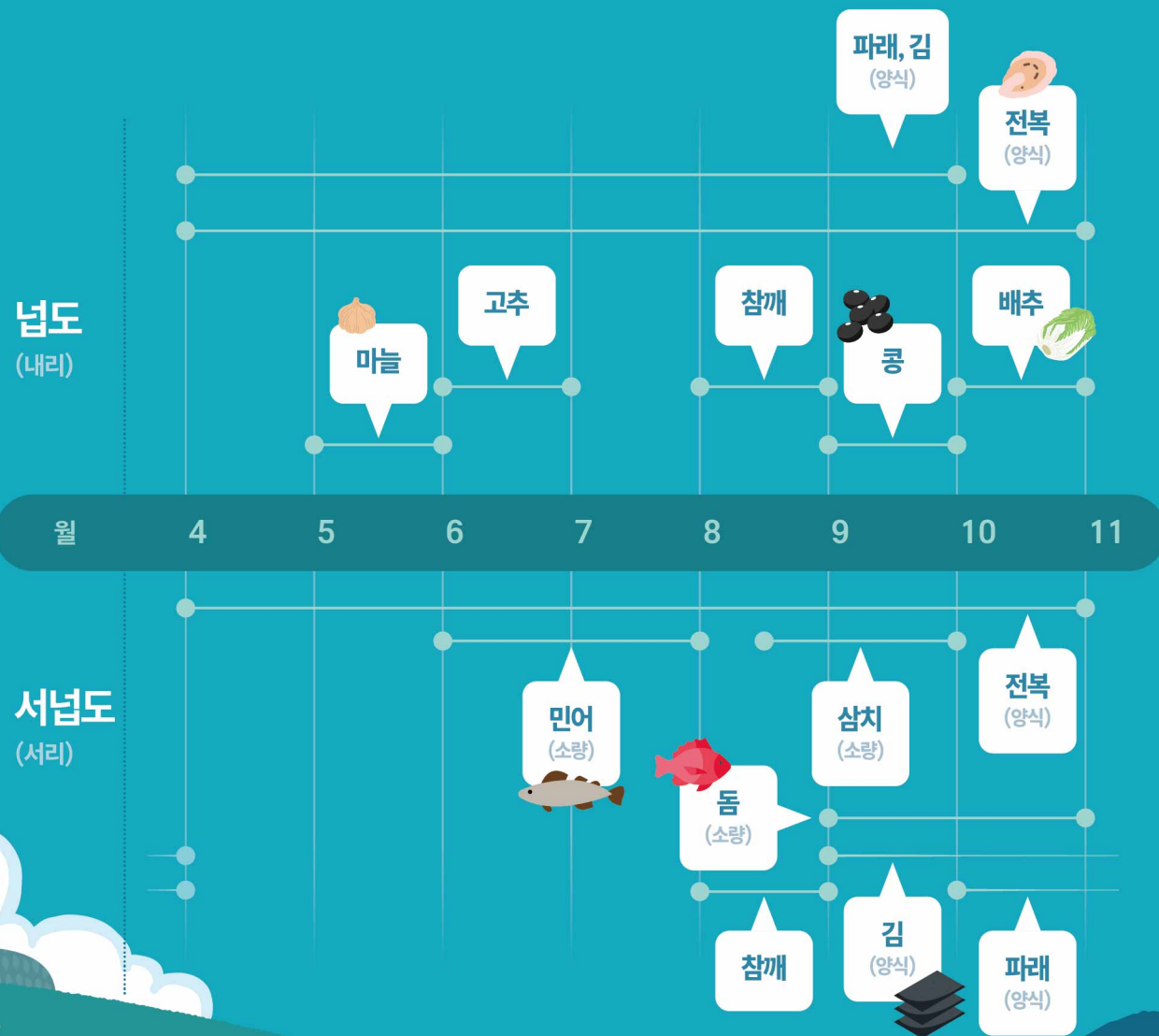
섬의 뿌리를 지키는 마음

넙도의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내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부터 바다와 함께한 삶, 전통을 이어가는 당제까지 그의 이야기는 곧 섬의 역사와 공동체의 숨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객선 문제에 대한 절절한 목소리는 섬 생활의 현실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섬 생활의 여객선은 주민들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주는 생명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넙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말했습니다. 바다와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 자원, 문화유산으로 지켜질 당제, 그리고 안정적인 교통망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워라벨, 그바람 속에는 섬 주민 모두의 소망이 담겨 있었죠! 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길을 지켜온 박기태 이장께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동넙도의 내일이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완도·넙도·서넙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K-섬잡

알면 쓸데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쓸모 가득! KOREA-섬 잡학사전 '알쓸K-섬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가보조항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차가 다니는 길, 비행기가 오가는 하늘길처럼, 배도 바다 위에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보조'라는 말이 붙었네요. 느낌이 오시죠? "국가에서 도와주는 배 길이구나!"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Q&A 시간 함께 해요!

Q1. 왜 국가가 지원할까요?

사람이 많지 않거나 멀리 떨어진 섬에는 여객선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순간에 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배가 끊기지 않고 꾸준히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국가보조항로입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생명선이자,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주는 중요한 길이죠!

Q2. 어떻게 운영될까요?

해양수산부가 선사를 정하고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29개 항로, 6개 업체, 29척의 배가 이 제도를 통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15개 항로 1개 업체, 16척이 다니고 있죠!

구분	선사명	항로명	선명
목포권	(주)해광운수	진도~죽도	섬사랑9호
		목포~율목	섬사랑10호, 13호
		향화~낙월	섬사랑12호
		계마~안마	섬사랑16호
		진리~재원	섬사랑3호
		웅곡~신도	섬사랑15호
(주)해광운수	북강~북강	섬사랑11호	
	도초~우이	섬사랑6호	
	이목~당사, 이목~남성	섬사랑1호	
완도권 여수권	(주)해광운수	이목~서넙	섬사랑8호
		완도~덕우	섬사랑5호
		완도~모도	섬사랑2호
		여서~완도	섬사랑7호
		손죽~광도	섬사랑호, 17호(예비선)

Q3. 왜 소중한가요?

배가 있어야 섬과 육지가 이어지고 생활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배가 곧 삶의 길이이자 안전의 길입니다.

Q4.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운임 지원과 스마트 행정 시스템이 확대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항로를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국가보조항로는 섬 주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바다 위에서 모두를 지켜주는 따뜻한 길입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실시간 넙도 날씨 확인



완도 넙도·서넙도 투어가이드

*2025년 7월 기준

기본 현황

넙도 239 502 2.571 12.5
가구 명 면적 km² 해안선 길이 km

주요 관공서 노화읍사무소 넙도출장소, 완도우체국넙도출장소, 완도군노화읍 넙도보건지소, 노화중학교 넙도분교장, 넙도초등학교, 넙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넙도 91 164 1.039 5.4
가구 명 면적 km² 해안선 길이 km

주요 관공서 노화서넙도보건진료소, 넙도초등학교 서리분교장

* 후장구도는 행정구역상 동넙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정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하는
내일 동·서넙도 운항정보를 확인 해볼까요?



1. 해남 땅끝항선착장에서 승선하는 경우

항차	땅끝	넙도	서넙도	서넙도	땅끝	선박명
1	07:00	08:00			08:55	(구)섬사랑 2호
2	10:10	10:50	11:10	11:30	12:15	노화카훼리 7호
3	11:30	12:30			13:20	(구)섬사랑 2호
4	14:20	15:10			15:50	노화카훼리 7호
5	16:30	17:30			18:20	(구)섬사랑 2호

전화번호 노화카훼리 7호(노화농협: 061-536-5688) / (구)섬사랑 2호(해광운수: 061-555-9088)

비 용 - 성인편도: 땅끝->서넙도(10,300원), 땅끝->넙도(8,800원), 서넙도->넙도(1,600원)
 - 차량편도: 땅끝->서넙도(30,000원), 땅끝->넙도(22,000원) *승용차 기준

2. 완도 노화도 이목선착장에서 승선하는 경우

비 용 - 성인편도: 노화->서넙도(1,650원), 노화->넙도(1,650원), 서넙도->넙도(1,650원)
 - 차량편도: 노화->서넙도(8,000원), 노화->넙도(11,000원) 서넙도->넙도(8,000원) *승용차 기준

항차	노화 출발	넙도 출발	선사 / 선박명
1	10:10	10:50	해광운수 / 섬사랑 8호
2	11:10	12:10	* 전화번호: 061-555-9088
3	14:00	14:50	
4	14:20	15:10	
5	16:00	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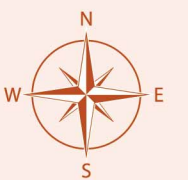
식당 및 편의 정보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부두민박 식당슈퍼	노화읍 넙도길 28	061-553-4214
지효슈퍼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471-1	061-554-1137
장푸드	노화읍 넙도 108번길 29-8	061-554-4238

서넙도에는 숙박시설과 식당, 마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하실 때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더욱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한국의 섬뉴스와 함께 보는 이달의 전남 섬 NEWS



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연말까지 40% 할인

- 성인 9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4천원으로 구입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판매를 시작했다. 사전예매는 총 4차례에 걸쳐 기간별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가장 큰 할인이 적용되는 1차 사전예매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40% 할인이 적용돼 성인 9천 원, 청소년 6천 원, 어린이 4천 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온라인 인터파크 놀티켓, 오프라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양진형 기자 | 2025. 09. 15.



김문수 전남도의원 “소멸 위기 먼섬, 선제 대응해야”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기반
- 맞춤형 발전 계획 등 4대 전략 제시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올해 시행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섬별 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장기 체류형 관계인구 확대 ▲스마트 기반시설 확충 ▲청정자원 기반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준성 기자 | 2025. 09. 10.



해수부, 섬 마을 식품사막화 개선...어복버스 시범사업 시동

- 가까운 섬 대상으로 어복장터 운영 시작...신선식품 실은 차량매주 찾아가
- 먼섬에는 섬 내 가공식품과 생필품 파는 어복점빵 설치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식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식품사막화 개선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어촌소멸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식품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섬의 접근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어복장터 운영, 어복점빵 설치를 각각 시범 추진한다. 어복장터는 매주 한 차례 저온탑차가 신안군(당사도→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 마을을 돌며 어민들에게 신선식품을 판매한다.

윤종은 기자 | 2025. 09. 15.

이달의 섬 코디네이터 ISSUE

여러분~ 잠깐 주목해주세요!

대한민국 섬의 64%가 전라남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섬이 있는 만큼, 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여행자를 친절히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을 지키고 방문객에게 안심 여행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섬코디네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섬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발걸음까지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줍니다. 교통편부터 놓치면 아쉬운 명소, 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숙박과 식사까지~여행자의 눈높이에 꼭 맞게 알려주는 섬 여행의 비밀 안내자 같은 존재죠!

2025년 현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전남 9개 시·군, 18개 섬에서 총 45명의 섬코디네이터가 활동 중이에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지금 YouTube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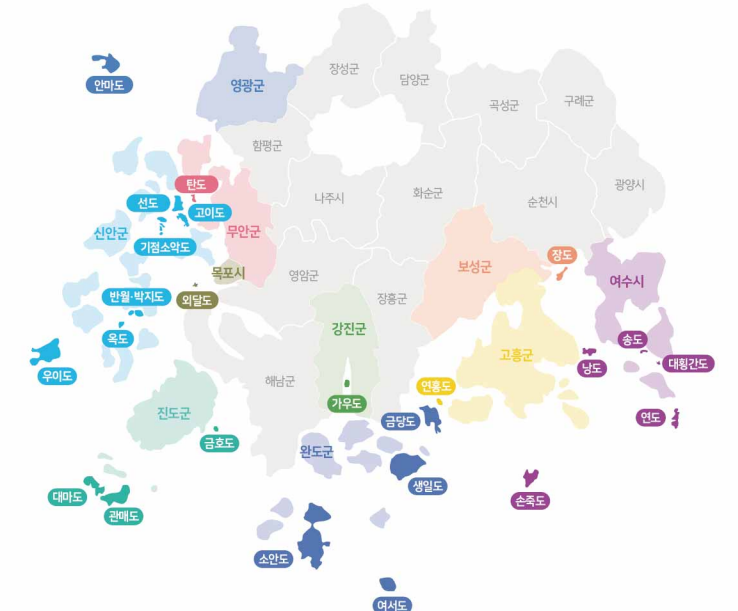
섬 코디네이터 활동 영상 보러가기
전남 가고 싶은 섬 TV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섬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전라남도만의 특별한 사업이에요. 섬 주민이 살아가기 편하고, 여행자가 자연스럽게 찾고 싶어지는 섬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섬코디네이터 현황

성명(인원)	성명(인원)
여수시	남도(1), 손죽도(6)
고흥군	연흥도(4)
보성군	장도(2)
강진군	가우도(2)
무안군	탄도(2)
영광군	안마도(1)
완도군	생일도(1), 여서도(3), 금당도(3)
진도군	관매도(2), 대마도(2), 금호도(1)
신안군	반월도(2), 박지도(1), 기점소악도(6), 선도(3), 우이도(3)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